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이것을 서열로 따지면 세계 9위라고 한다.

동이(東夷)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데 “예를 좋아하고 무를 천하게 여기는” “군자의 나라”라고 했다.

임진년의 작은 소망

경제력뿐만 아니라 박찬호, 박세리, 조수미, 김연아, 신경숙 등이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자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에도 문화적으로는 중국과 대동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다산의 다른 글을 읽으면 분명히 드러난다.

에 때도는 막말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해의 지도급 인사인 판사의 페이스북에 ‘가까새끼 짬뽕’, ‘가가가 처말아 먹은 비릿한 그 맛’ 등의 비속어가 올라 있고,

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의 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두고 ‘취새끼 이상훈과 암컷 쥐와 그 자식 쥐들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폭 깡패와 동일, 나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이라도 좀 더 품위 있게 표현할 수는 없을 까? 친구끼리 만나서 “네 아버지 잘 있니?”라 말하는 것과 “자네 촌부장께서 평안하십니까?”라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방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사해에는 인터넷에 의해 더러워진 말부터 정화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품위도 유지하고 국가의 품위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박재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는 역사가 된다. 되돌아보면 지나간 역사의 어느 한 순간도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고 소멸했다. 토인비는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명과 종교의 발상지는 적막하고 고독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한국농업의 도전과 응전

지난해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로 정국이 침체하게 대립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이제 발효만을 앞두고 있다.

아니라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력과 규모화를 앞세운 미국 농산물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법조칼럼



김정호

지난 2011년 가을에도 그는 땅콩을 정성스럽게 담아 필자의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지난 2009년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변호인인 필자에게 가을이 되면 땅콩으로 마음을 전하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2년 5개월에 걸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판결한 것이다.

땅콩에 담긴 피고인의 마음

의 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사회성을 담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인 한상훈이 국외로 도피성 외유 중이고 피고인인 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명예훼손의 소지를 스스로 자초한 사실이 있다고 변호했다.

나는 자리에 동석해 프랭크 라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프랭크 라쉬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과 문화방송 피다수첩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구형차 머리 받침대에 보조지지대 설치...목 부상 위험 줄이자

요즘은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서 안전벨트는 거의 다 필수로 매는 편이다. 그리고 이제는 안전벨트를 앉아서뿐만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다.

가 되지 않지만 목은 중상을 일으킬 큰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목 부상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받침대가 얼마나 안전성 있게 장착돼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도가 높은 머리 지지대가 장착된 차는 추돌이 되더라도 목 모양이 유지된다.

에 나온 구형 차는 머리 지지대가 시트와 거의 일직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크다. 따라서 보조 지지대만 잘 사용해도 목 부상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이 운전하는 차의 구조가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 머리 지지대와 6cm이상 벗어나 있는 구형차를 타고 있는 경우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소통·화합 없이 국가안정 기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새해 국정 운영의 두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서민생활 안정을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 경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 타결)’과 함께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3%대 초반 억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경제운영의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경제의 올 성장률 전망치가 3%대로 떨어지는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하지만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 유지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향후 한반도 경제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와 과오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특성과 독유에 있다. 소통과 화합이 무시되면서 이념 대결을 통한 과거 회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호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변화 갈망하는 민심 직시해야

19대 총선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 절반 이상이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았다. 전남도민들도 ‘현역의원 비지지 비율’은 51.4%로 지지 비율 37.8%를 앞질렀다. 이런 광주·전남 지역민의 ‘현역의원 비지지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5~6명이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대표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케이 엠조사연구소(주)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2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총선·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9.9%로, 지지하겠다는 응답 32.6%를 크게 앞섰다.

또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후보들의 궤약이행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어 정당 31.5%, 후보 경력 11.5% 순이었다. 그동안 민주당 49.9%로, 지지하겠다는 응답 32.6%를 크게 앞섰다.

無等鼓

이문열의 베스트셀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주인공 엄석대는 이른바 ‘일진 중의 일진’이었다. 우선 반장인 데다 덩치도 커 학급에서 감히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다.

최근 광주와 대구의 중학교에서 벌어진 자살사건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일진’들이 있었다. 요즘 일진의 의미가 싸움 잘하는 학생으로 국한됐지만 선량한 학생들의 의식을 쪼끔한다는 점에서는 엄석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시골학교로 전학 온 한병태는 첫날 교실을 장악하고 있는 엄석대를 만나게 된다. 한병태는 그에 대항하려 했으나 대항하면 할수록 급우들은 자신을 따돌린다. 선생남도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자 한병태는 결국 굴복하고 만다.

아간 사이 교실은 곧 바로 일진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이 시간을 틈타 일진은 학생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한다. 교사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진들의 횡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엄석대의 비행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급기야 성적 조작이 불거져 엄석대는 처참하게 몰락하고 만다. 교실에서 엄석대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탐입의 시선이 사라진 동안이었다. 위선에도 때로는 탐입의 지시임을 내세우는 호가호위로 급우들을 철저하게 짓누른다.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당국은 또 뒷북이다.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정을 선포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련 부처들은 사후약방문으로 호들갑이다.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엄석대들을 쫓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간.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